



2015년도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Gyeonggi-do Cultural Center

연수일정표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0:45~11:00	15	○ 연수 등록 및 접수		
11:00~11:50	50	○ 개회식 - 국민의례/문화비전선언 - 인사말(회장)/축사(도지사, 도의회의장) - 격려사(연합회장) - 환영사(여주시장, 여주시의회의장) - 축하공연 (여주문화원 동아리)	강당	
11:50~12:00	10	○ 사진촬영	강당	
12:00~13:00	60	○ 중식	식당	
13:00~14:40	100	○ 주제 강연 한국 문화 정책 패러다임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 강사 : 정병국(국회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당	
14:40~15:00	20	○ 휴식		
15:00~16:40	100	○ 섹션강연&토론회	각 강의실	
		- 주제1: 2016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 - 좌장: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발제: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문 화 원 장
		- 주제2: 2016년 문화원 사업 아젠다 토론 - 좌장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 발제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사 무 국 장
		- 주제3: 문화원간 집단 소통의 방향성 찾기 - 강사 : 이도경 (수토피아HR컨설팅 조직성과연구실 상임이사)		직 원
		- 주제4: 문화가족의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 강사 : 이선우(LEARN & RUN대표)	임 원 및 회 원	
16:40~17:00	20	○ 휴식		
17:00~18:00	60	○ 네트워크파티 1부 - 2015 경기도지방문화원어워드(시상식) - 축하공연(여주 우수 동아리)	강당	
18:00~19:00	60	○ 네트워크파티 2부 _ 석식	식당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여 백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2015년도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개회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경기도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끝자락 이 곳 아름다운 여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도문화원들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원경희 여주시장님,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님, 정병국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28개 문화원을 이끌고 계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였고, 한 해 동안 지역문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문화원들은 그동안 '진정성 있는 사업추진과 눈에 띄는 성과'로 도 차원에서도 전과 달리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원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차츰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뿌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 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6년에는 문화정책의 큰 흐름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예술사업의 전국적 확대, 어르신 사업의 확장, 문화복지기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문화원은篤心 있게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지켜왔습니다만,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획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일 또한 중요

합니다.

'시대를 공감하고, 시대를 앞서 가는'경기도문화원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연수를 통해 지금 당면해 있는 지방문화원의 문제를 해결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국장님들은 국장님대로 조직, 경영, 사업 측면에서 2016년도에 경기도31개 시, 군문화원이 이것만은 해 보겠다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지요'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좋은 문화원이 있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문화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함께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경기도 문화원의 면모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년간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경기도지사 남 경 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가족들이 모이는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각 시·도 문화원과 연합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문화를 지키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경기도문화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가족 한분 한분이 지역문화 활동가로써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를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상생발전을 협의하고, 비전과 전략의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 경 동

존경하는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과 31개 시·군 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원 경 희 여주시장님과 이 환 설 여주시의회회의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는 경기도내 31개 문화원 가족들이 문화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시, 군문화원은 도농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향토문화의 보존이 뛰어나 지역 문화 창조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예술이 그 나라 국민정신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전통문화는 그 뿌리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 시련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 깊은 문화예술의 저력이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는 문화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문화가족들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뒷받침 하고자 한

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문화원장님과,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여주시장 원 경 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가족이 함께하는 '제1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행사를 축하드리며, 여주를 찾아주신 31개 시·군 문화원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는데는 지역 문화원이 큰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도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앞장서 오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융성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문화융성이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문화의 시대에 행복은 수준 높은 문화 혜택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 자신감이 충만해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충만과 경기도의 문화융성과 문화복지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 가족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주시는 문화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라는 인식 하

에 문화관광을 제1의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문화재단 설립 추진 등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가족 합동연수 행사가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문화적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며, 지역문화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데 동력충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기문화원 가족들의 우호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기도 지역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인사 드립니다.

을미년 한해가 시작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1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를 역사와 문화의 고장, 여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 되었으며,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과 뚜렷한 주체의식을 품고 북방대륙을 정벌하여 옛 국토를 회복하려던 효종 대왕님이 영면해 계신 이곳, 여주를 찾아주신 경기도 문화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1,236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국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정병국**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을

님과 **김문영** 여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문화가족 여러분!

경기도내 문화관계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와 문화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늘 31개 시·군 문화원 관계자와 그 가족이 함께 모인 가운데 합동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의 홍보·문예진흥과 지역 향토문화 보전·전승을 비롯한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향토문화를 발굴·정리하여 향토사를 펴내는데 “고군 분투”하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31개 시·군 문화원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31개 시·군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주제강연

- 대상 : 전체
한국 문화정책 패러다임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정병국 (국회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색션강의 & 토론회

제1색션)

- 대상 : 문화원장
2016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
○ 좌장 :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발제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제2색션)

- 대상 : 사무국장
2016년 문화원 사업 아젠다 토론
○ 좌장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 발제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제3색션)

- 대상 : 직원
문화원 간 집단 소통의 방향성 찾기
○ 강사 : 이도경(휴토피아 HR컨설팅 조직성과연구실 상임이사)

제4색션)

- 대상 : 임원 및 회원
문화가족의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 강사 : 이선우(LEARN&RUN대표)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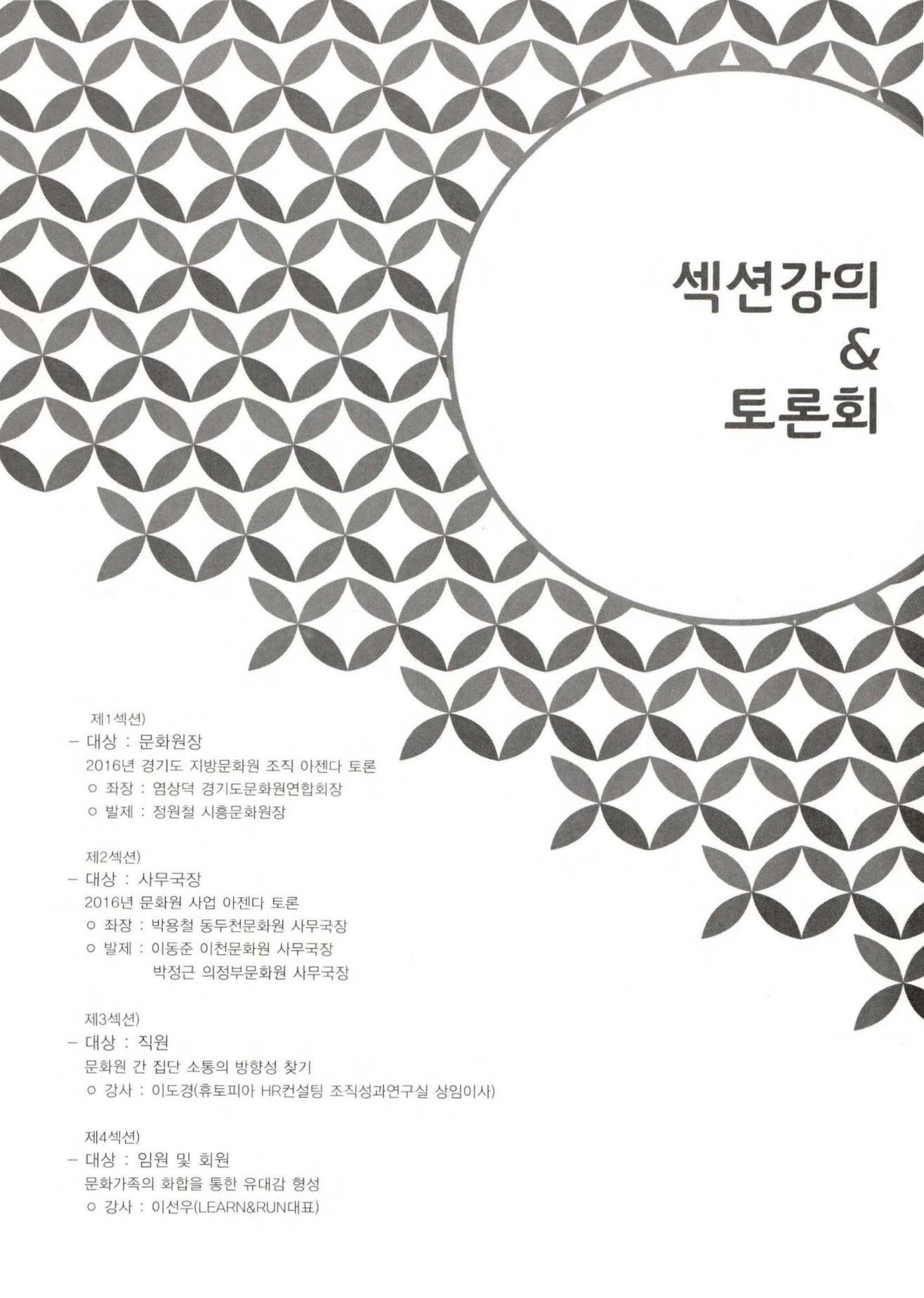


[주제강연]

**한국 문화 정책
패러다임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정 병 국 (국회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 백



섹션강의 & 토론회

제1섹션)

- 대상 : 문화원장
2016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
 - o 좌장 :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o 발제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제2섹션)

- 대상 : 사무국장
2016년 문화원 사업 아젠다 토론
 - o 좌장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 o 발제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제3섹션)

- 대상 : 직원
문화원 간 집단 소통의 방향성 찾기
 - o 강사 : 이도경(휴토피아 HR컨설팅 조직성과연구실 상임이사)

제4섹션)

- 대상 : 임원 및 회원
문화가족의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 o 강사 : 이선우(LEARN&RUN대표)

여 백



[주제1]

2016년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

- 좌 장 :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발 제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여 백

2016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회

<조직·경영부문> 발제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1.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으로서의 조직 강화

경기도 내 31개 시군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 조직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표준안이 없는 부문은 표준규정의 제정과 더불어, 각 시군의 행정조직에 급여 반영의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원 조직을 만들고자 함. 그 일환으로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활발한 의사 소통과 수렴을 제안함.

(1)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의 조직 안정화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31개 시군 문화원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함

(2) 시군 문화원 규정 제정 및 개정

시군 문화원의 인사관리규정 및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곳은 제정하여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으로서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며, 기 제정한 규정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곳은 개정하여 항구적 발전의 기초를 닦도록 함. 그를 위하여 경기도 연합회 차원의 토론회를 제안함.

(3) 시군 문화원 직원 호칭 및 직급 통일

공무원처럼 각 시군 문화원 직원의 호칭을 통일하여 문화원 간의 네트워크를 원활히 하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며, 급여 및 문화원 조직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각 시군 지방 정부에 발송하도록 함.

2. 문화원 사업의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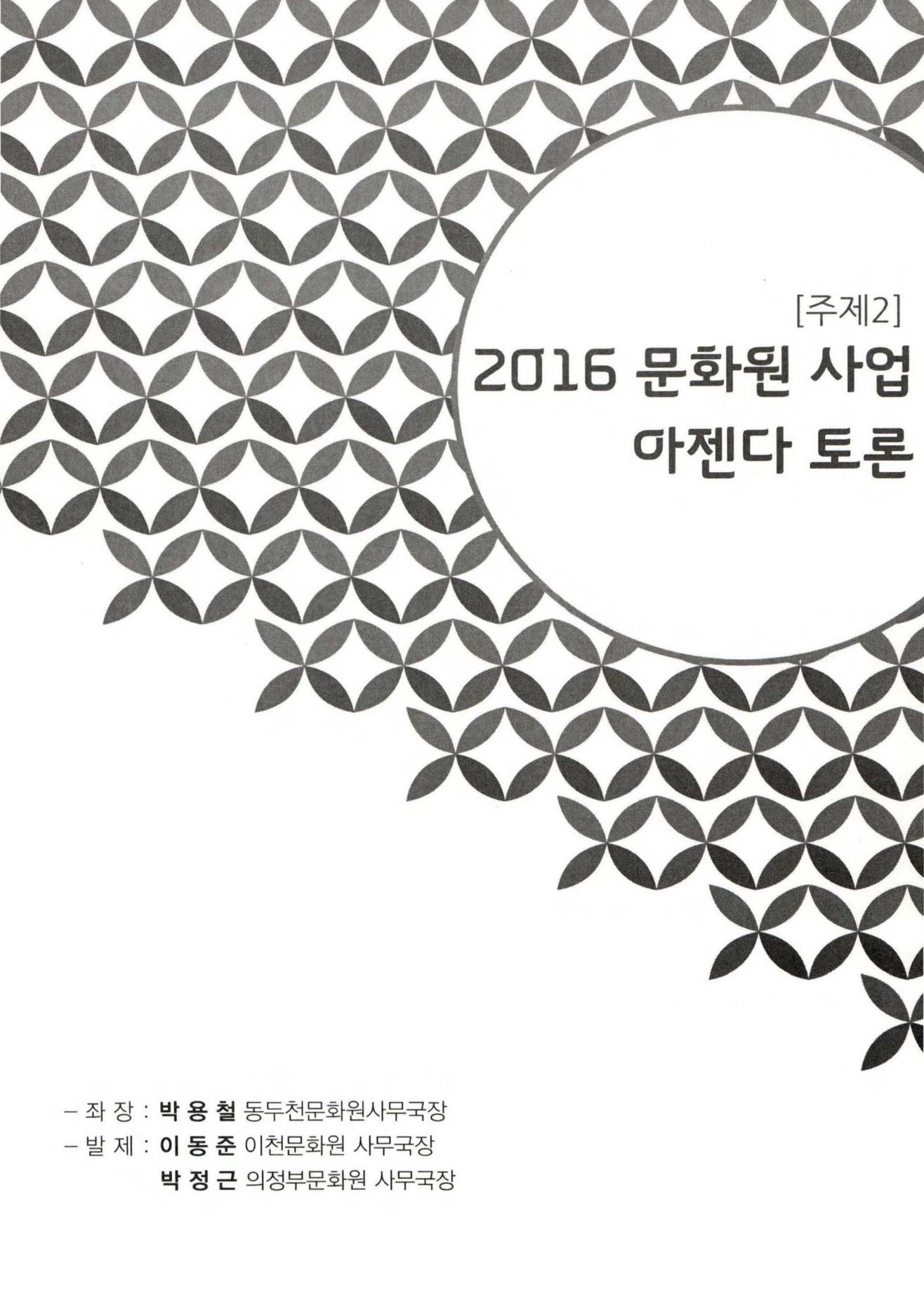
(1)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무형유산 등록 추진

국립무형유산원과의 업무 연계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출전 작품도 국

가의 무형유산으로 콘텐츠화하고, 시군 문화원은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출전 작품을 향 후 유네스크 무형문화유산 등록의 가능성을 감안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제안함.

(2) 무형유산 지기의 네트워크화

시군 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지기 교육 프로그램을 유입 하여 경기도내 문화원의 무형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강화시키기를 제안함.



[주제2]

2016 문화원 사업 아젠다 토론

- 좌 장 : **박 용 철**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 발 제 : **이 동 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 정 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여 백

2016년 문화원 사업 아젠다 제안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1. “아카이브 구축 - 더는 미룰 수 없다!”

가. 전통을 끌어안지만 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를 보면 문화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코어와 허브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과거 문화원은 오로지 ‘과거’의 기록과 유물의 연구에만 매달렸다. ‘전통문화’는 문화원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념, 문화의 범주가 확연히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이 오늘날 문화원의 현실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문화유산’ 개념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보존’에서 미래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상속’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나. 이젠 ‘보관’이 아니라 ‘활용’이다!

또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이나 예술, 문화 등 현재의 생활문화도 미래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담아내는 아카이브 구축이야말로 문화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보관’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발굴과 콘텐츠창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활용’에 중점을 둔 문화콘텐츠 라이브러리로서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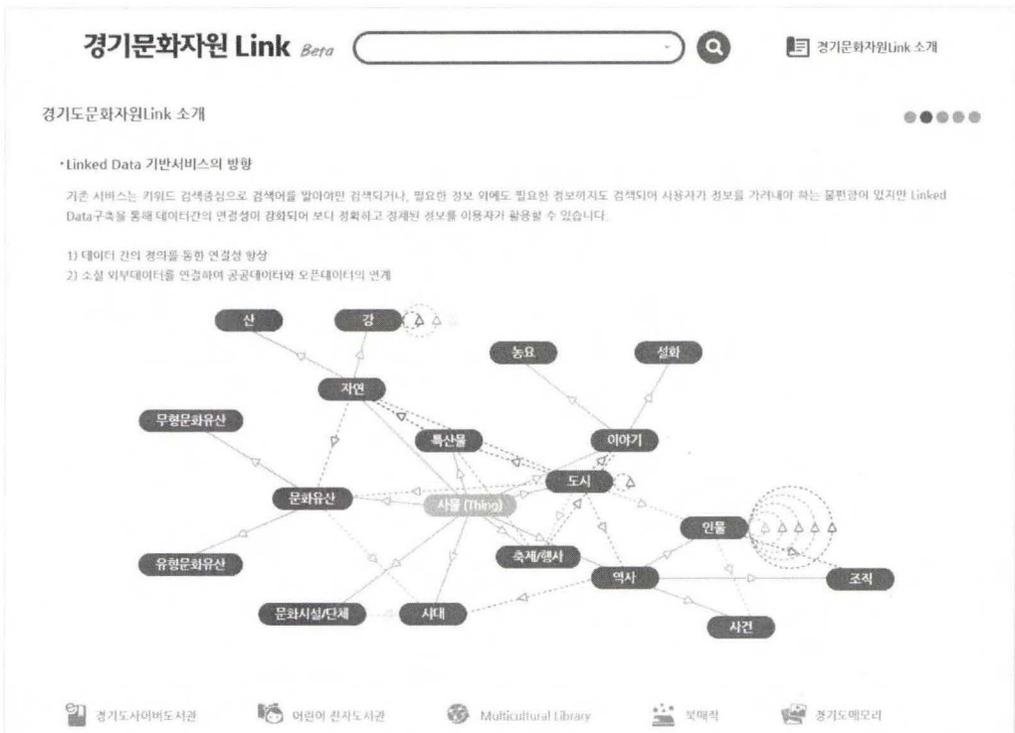
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추진방안 제안

1) 경기도 문화원만의 색깔 있는 아카이브 구축

- 목표는 지역문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임. 이를 위한 지역문화 아카이브 표준 매뉴얼을 제시
- 1차적 과제는 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공동의 배너로 브랜드화해서 경기도 지역만의 아카이브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2)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 시민의 입장에서 아카이브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기도 문화원이 공동으로 개발
- 아카이브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제시 필요.1)



3) 전문적인 지역문화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

- 지역문화 자료가 집대성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군 지자체, 지방문화원, 시립도서관, 그리고 민간영역의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과 연동되어 사용자의 입장에

1) 그 한 가지 예로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업기술과 체험들을 빌려주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업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마포에서 운영되는 숨쉬는 도서관, 서울숲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휴먼라이브러리수원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이런 공감대 위에서 경기도 지역의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집약해서 표출시킬 수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사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내년에 경기도 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매년 한 가지씩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라. 아카이브형 콘텐츠 사업 제안

1) 경기도의 다양한 민속을 보여주는 '소리아카이브' 만들기

- 경기도의 지역별 고유한 정서와 민속 문화를 보여주는 소리와 가락(논맴소리, 상여소리 등)을 10가지씩 선정하여 오디오아카이브를 만드는 사업
- 경기도의 각 지역별 토박이 일상언어를 채록하여 경기방언의 고유한 표현들을 소리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함(2~5인을 선정)

2) 경기도 문화원과 함께하는 '이야기아카이브' 만들기

- 경기도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는 지역별 대표 이야기 10가지씩을 선정해 300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경기도 스토리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

3) 지역의 대표인물을 새롭게 발굴하는 '新 경기문화인물'

- 경기도 지역마다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조명 받지 못한 인물 가운데 21세기 문화가치에 맞는 참신한 인물을 1인씩 발굴하여 21세기 경기문화인물로 확산하는 사업 (예: 제주시의 여성 김만덕 발굴)²⁾

4) 경기도 '아카이브 지도' 만들기 - 소리지도, 이야기지도, 인물지도 등

- 이상 세 가지 분야의 아카이브를 경기도 차원에서 구축하고 그 아카이브의 활용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 리플렛, CD 등으로 만들어 도서관 및 공공기관, 시민에 배포하고 문화탐방에 활용하도록 함

5) '경기도 스토리텔링 창작집' 발간

- 아카이브를 통해 확보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이를 2차 문화 콘텐츠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문화원별로 1개씩 추진
- 웹툰, 미디어아트, 연극, 무용, 인형극, 문화탐방 내레이션 등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한 대본 형식의 창작집을 경기도문화원에서 발간

2)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기리는 김만덕기념관 건립. 기녀로 신분 한계를 극복하고 백성을 구휼했던 인물

6) 제1회 '경기도 문화콘텐츠 창작경연대회' 실시

- 2차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집 발간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창작경연대회를 실시(경기도민속경연대회는 전통민속의 발굴, 원형보존에 국한되어 2차 콘텐츠화 확대에 한계)
-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필수(내년은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해)

7) 경기도 문화원과 함께하는 '우리고을 엿더하니잇고' 사업

- 이 프로젝트를 경기도 문화원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브랜드화해서 추진(예: 순천의 도시아이덴티티를 브랜드화한 '천가지로' 참조)
- 경기엿더하니잇고의 지역별 버전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겠음(파주엿더하니잇고 가평엿더하니잇고, 시흥엿더하니잇고, 안산엿더하니잇고 등)

2. "지역학으로의 전환 - 이제는 소명이다!"

가.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문화원의 강점이었던 전통문화, 향토문화가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할 길목에서 문화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고창신은 힘겨운 자기부정의 산고를 치루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긴 설명보다는 지방문화원이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할 '지역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월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되었던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있는가?'의 다음 내용³⁾을 참고하면 좋겠다.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뚜렷한 동향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지역연구 분야인 'region 연구 관점'(가치중립적인 지방 연구)에서 'local 및 space 연구 관점'(지방 및 공간사회학적 관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고 모순적인 지역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지방학자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3) 출처 : 김영정(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2014): pp.163-199

...이동과 교류의 일상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광역화, 그리고 비슷한 생활양식의 공간적 확산 등으로 오늘날 지역의 정체성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그 결과 지역 연구의 정체성도 미망에 빠져 든 것이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인정되고, 확인될 뿐, 그 밖의 지방과 지방, 농촌과 농촌,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인되질 않는다. 삶의 물리적 환경과 경관마저도 급속히 동형화되고 있다.

..시기와 시대를 가로질러 항용 나타나는 정체 위기를 넘어 지역연구가 나름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은 없을까? 아마도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의 내부 문제로 시야를 돌려 '현장 문제'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훨씬 적극적인 방법은 각각의 지역(지방)이 특색 있고,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길이다.

...지역연구는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암시해야 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지역발전 모습이 무언가를 제시해야하는 실천적 목표를 무시할 수 없다.」

나. 지역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학'은 지역연구를 가리키는 말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와 인문환경을 아우르는 지역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말한다. 지역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장소로,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역학은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생활사를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역사의 사료와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관습이나 민속, 전승, 구전설화와 마을사,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학습의 주된 원천이자 장으로 존재하며 평생학습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평생학습은 그저 어느 곳에서도 별 차이 없는 평생학습에 그쳤을 뿐, '지역'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했다. 이런 평생학습이라면 지역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근거해야 할 터전이 지역이며, 평생학습의 주인은 지자체나 전문가, 공무원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습'은 지역학의 전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이다. 지역을 알아가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 . 삶의 냄새가 풀풀나는 주민 삶의 현장에 주목하자!

그동안 지역의 역사에 주민의 삶과 애환은 없었다. 실록, 읍지류 같은 기록물에 주로 의존해왔던 향토사에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힘들다. 권력의 역사를 걷어치우고 이제는 삶의 냄새가 풀풀 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록해야 할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여야 한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낳고 길러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딸들의 이야기, 농부와 대장장이와 씨름꾼의 이야기,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고 세대에서 세대로 삶을 이어왔던 이천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기록된' 이야기보다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원래 책에 기록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몸에 있었다. 몸에 배어있고 삶에 배어있고 그들의 아픔 속에,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 녹아있었다. 그것이 최근 구술사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 뽀뽀한 전통을 부드럽게 만들 책임은 문화원에 있다!

지역을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자원으로, 행정구역이 아니라 콘텐츠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다시 읽고, 다시 그려보고, 다시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 단위에서 지역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1) 경기도 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바로알기 교과서' 발간

- 기존의 방대한 시군지는 너무 방대. 따라서 전체를 개관하여 학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권(100~220쪽) 분량의 지역학 교과서를 발간
- 지역학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통일시키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 구축한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콘텐츠로 입력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임

2) 문화원 브랜드사업으로 '문화이야기꾼' 양성

-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 기조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⁴⁾ 기존방식의 문화해설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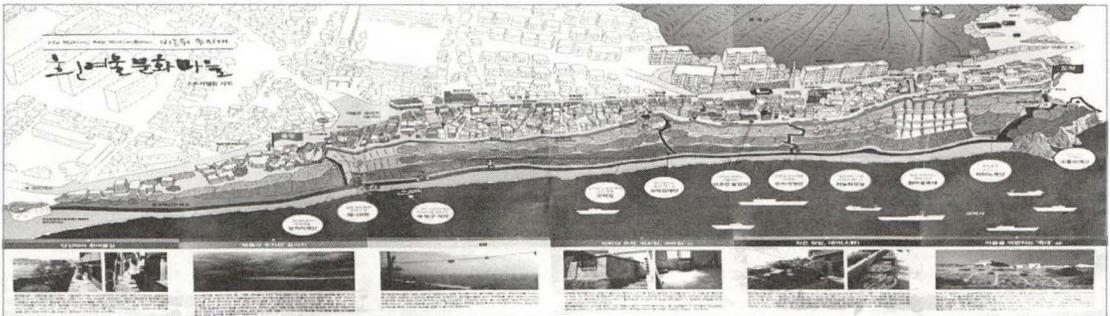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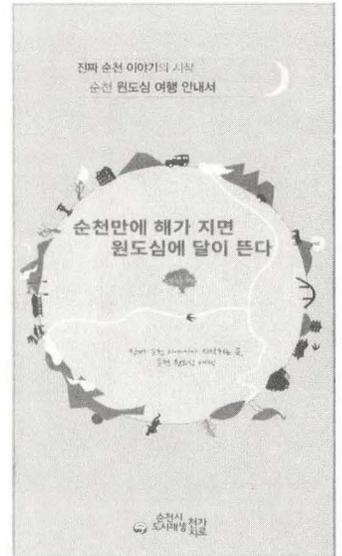
4) 2016년 8월 초 문화부는 '이야기산업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스토리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자산. 따라서 스토리를 산업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대통령 지시사항-

계를 극복해야 함

-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소통하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지역 이야기꾼을 양성

3) '지역알기 프로그램' 실시 및 색깔 있는 '문화탐방 가이드 북'(지도) 만들기

- 지역학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역알기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 중심 문화탐방 가이드 북(맵) 만들기
(예1: 순천 원도심여행 안내서, 순천시 도시재생 천가지로 맵, 순천 유희자원조사 가이드북 등)
(예2: 부산영도문화원의 대평동 강강이길 문화탐방지도, 흰여울 따개비마을 지도 등)



4) 지역학 전문가 육성

- 기존 향토사, 향토문화를 지역학 개념으로 전환하여 추진
 - 지역학 전문가 육성 분야 : 연구분야, 활용분야, 교육분야
- 그동안의 경기 '향토문화연구'도 경기 '지역문화연구'로 전환 필요

5) 문화원이 주축이 되는 지역문화 일자리 만들기

- 문화원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 분야에서 이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 이아기꾼 네트워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해왔던 문화탐방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 천편일률적인 구성과 문화유적 위주로 코스를 잡고 있는 문화탐방이 어느 정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해석, 생동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는 코스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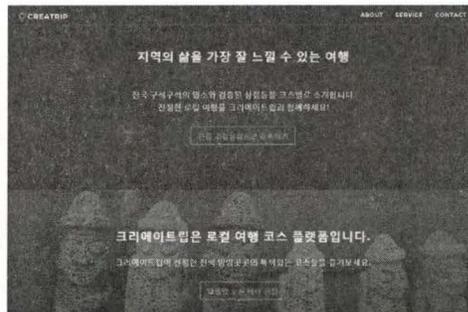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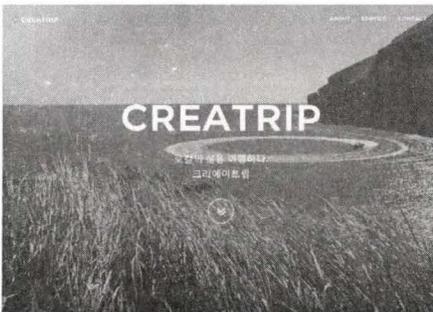
로컬여행코스 플랫폼 '크리에이트리프'(Creatrip)의 예

[문제의식]

- 기 알려진 관광코스가 아닌 새로운 코스를 찾아 제공하는 로컬여행 플랫폼.
- 여행사 편익에 맞춘 일정이 아니라 사용자 니즈를 파악해 여행코스를 발굴.
- 여행 콘텐츠나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데이터 내용을 받아서 이용자 관점으로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로컬 여행코스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관광 구조를 혁신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기업

[사업방향]

- 자체적으로 발굴한 코스들 + 기존 콘텐츠 보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코스들
-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했다 여기고, 쓸만한 곳에 돈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광의 참된 구조라고 보는 철학.
- 지역의 구석구석 정보,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의 정보를 모아 DB화 한다면, 퍼스트가 될 것이라 판단.



3. 문화원의 생활문화 역할 확산

가. 생활문화에 문화원은 감이 없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일상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문화원은 이런 자발성과 일상성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고민해 왔었나?

최근 들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중요해지면서 주민 중심, 생활현장 중심의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에 창조적으로 실천해보려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란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공동체에 고유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새롭게 소통하고 통합을 이루어 가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시설이나 공간,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축제, 관광과 문화산업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획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려는 문화주체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처음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공동체는 이러한 인식변화에 근거하여 확산되고 있다.

문화원이 그동안 주민과 접점을 이루어온 사업이 문화학교와 어르신문화학교였다. 하지만 냉정히 문화원에 대한 현실인식을 고백해보자. 문화원은 20여 년 전 당시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학교를 처음 지역사회에 도입했다.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과 기술을 전수하거나 자격취득을 위주로 하는 강좌, 또는 취미교실, 강사 중심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문화학교를 아직도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생활문화를 논함에 있어서 문화원의 강점이 되겠는가? 아니면 약점이 되겠는가? 문화학교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가지고 문화원은 과연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문화학교 사업에 녹여낼 수 있을까? 문화학교를 통해 형성된 동아리를 생활문화 동아리로 진화시킬 수 있을까? 문화학교 강좌의 대부분이 문화예술

강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한참은 빛나갔다.

나. '문화원' 너머, '전통' 너머에 '주민'이 있고 '생활문화 현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현장에서는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 중심, 단기간 성과 중심의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자원을 성급하게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고려 없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문화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주민참여와 주민중심, 주민주체의 생활문화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화원이 추진해왔던 어설픈 정책과 사업을 미련 없이 떨쳐내야 한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주민 역할을 강조하거나 대책 없이 주민을 앞장세우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문화, 생활문화의 본질과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를 촉진하고 매개해야 할 역할을 문화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생활문화예술은 공연장이나 전시장과 같은 구별된 문화공간 너머에 있고, 주민을 더 이상 관객이나 관람자의 자리에 앉히려는 태도 너머에 존재한다. 사적 인식 수준에 머물면서 문화를 수동적으로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성격의 동호회나 동아리 조직을 어떻게 공공적 공동체적 인식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문화원이 벗어나지 못하는 선입견이 하나 있다. '예총은 프로, 문화원은 아마추어' - 이 말이 맞는가? 예총은 전문예술인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배우는 이에게 전문성을 전수함으로써 전문인을 길러낼 수 있지만 문화원을 통해서는 아마추어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주요 공연이나 전시, 예술 활동의 중심에는 전문성을 갖춘 예총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견이 있다.

과연 그런가?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 태도이다. 전문예술인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자신의 학생들이 전문인이 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 중심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떨치지 못하는 한 그를 생활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사업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하위 범주도 아니고 프로 대 아마추어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제안

1) 지역 내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창출

- 도서관, 문화원, 미술관, 전철역사 등 지역 내 유휴시설과 공간을 찾아내어 자료화 하고(자료수집 및 정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
- 경기도 전체문화원이 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제시

2)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및 활동기반 제공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문화학교 혁신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매년 2개 사업 선정)
- 경기도 31개 문화원 간 생활문화동아리 정보를 공유하고 각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행사, 축제, 사업 등에 연계하여 초청하여 공연기회 제공
-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문화동아리 인큐베이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엄마와 아이들, 재활용품으로 스토리와 리듬을 엮다

마을 아이들, 술바위 전설로 공연을 만들다

통장님들, 마을 쓰레기 문제를 탈춤으로 풀다

알록달록 양동이 난타, 통장님들의 스트레스를 날리다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보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SNS는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한 가지 도구일 뿐임. 문제는 SNS에 앞서서 지역의 문화소식을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가치를 창출해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ICBM(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모두 중요. 그 중에서도 활용가치 및 보급, 확산의 측면에서 볼 때 소셜 큐레이션 성격의 플립보드 서비스⁵⁾가 가장 효과적임.

5) 플립보드(Flipboard)sms 한 곳에서 뉴스를 따라잡고, 관심 있는 토픽을 팔로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스토리와 비디오,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SNS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 프로그램, 공연, 전시 내용을 그냥 데이터나 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음
- 문제는 이러한 정보 내용을 이용자 관점에서 고도의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정리, 배열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큐레이션하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 소셜 큐레이션 성격의 플립보드를 구축하여 경기도민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⁶⁾
- 경기도 내 31개 문화원이 월별 문화일정 가운데 핵심이 되는 생활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2~3개씩 정리하여 공동의 문화 플립보드로 활용

6) 현재의 문화원연합회 소식지 맨 마지막에 실리는 '지방문화원 행사일정'이 무의미한 문화정보 제공의 한 예임. 단순한 정보 나열식의 관리자 중심 사업홍보는 문화원의 올드한 이미지를 더욱 가중시킴.

경기도 지방문화원 이젠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박정근 /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전국의 지방문화원 그 중심엔 항상 경기도 31개 문화원이 있었다.

전국 230여개의 지방문화원은 각각의 성격과 그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독립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왔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욕구 증대로 인해 문화원의 사업분야는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앞장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한 곳이 바로 경기도의 문화원이다. 그 도 그럴 것이 지리적으로 중앙에 가까워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한 그 수가 가장 많고 집결력이 강한 강점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때도 있었다.

지방문화원의 역량이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이라 가늠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과 10여 년 전에도 그렇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문예회관, 예총,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단체의 등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들 간의 경쟁, 조금 더 과장하자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문화원은 이제 열심히 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잘해야 하는 현실과 싸우며 갖갖으로 버티고 적응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듯이 지역문화재단의 등장으로 1차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들의 전쟁은 끝이 났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곧 대부분의 지자체에 문화재단이란 문화공룡이 탄생할 것이고 문화원은 또 한번의 적응을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문화원은 변하는 게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련 된 거의 모든 분야에 그 사업영역을 두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해야하는 현실에 기인하여 전문성 또는 완성

도에 대한 지적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도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각 문화원만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진화하여야 한다.

문화원 지금부터 PR 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시민들의 가슴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만큼 끈끈한 가족애를 키워왔다.

하지만 문화원 밖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문화원은 단지 지역의 전통문화, 향토문화를 보존·전승하는 단체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노화되고 정체된 단체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원이 진행하는 문화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문성과 기관의 성격을 이유로 주관단체 경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문화원진흥법 및 문화원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은 우리들만의 외침으로 조금씩 잊혀져간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잊혀 있는지도 모른다.

문화원은 사실 365일 바쁘다. 실제로 수많은 사업의 주최자로 또는 협력자로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바로 전략적 홍보에 약하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원의 우수한 사업을 알리고 나아가 문화원 조직의 역량을 홍보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적 이미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경기도문화원 2016년 이런 사업 어떨까?

뭉치면 길이 보인다.

1. 공연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지역 대표인물 시놉시스집 발간

제안 배경:

☞ 지방문화원의 가장 큰 자산은 지역의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를 통한 자료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적된 자료의 활용이란 면에서 접근한다면 문화원이 그 역할

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지방문화원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문화원형을 정리하여 2차 문화적 가공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추진방안:

- 문화원별 1명의 인물을 선정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놉시스집 발간
- 각 문화원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만들어가는 공동 프로젝트로 운영
-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공연단체와 연계 작품으로 개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음.

2. 경기도 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지도 만들기

제안 배경:

☞ 경기도 지방문화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탐방 사업이며 각 지역의 문화유적 탐방에 대한 정보는 이미 문화원에 축적되어 있음.

☞ 문화원이 가장 잘하고 또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문화탐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와 노하우를 모아 경기도 문화관광 가이드 북 및 투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문화원의 수익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바우처 사업 및 공모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역량을 보여 줄 수 있음.

추진방안:

- 각 문화원에서 최적의 코스 선정
- 대표 맛집 선정
- 탐방 지역에 관한 자료 수집
- 경기도 전체 문화원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 경기문화재단 및 도 예산 확보

3. 경기도 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 출동 프로젝트

제안 배경:

☞ 현재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정책 및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이 생활문화, 마을문화 사업의 핵심적 요소로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육성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문화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미 성남문화재단을 필두로 다수의 문화재단이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부천의 경우는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생활

문화동아리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재정을 통해 시와 문화재단이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문화원은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축적되어온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생활문화동아리사업에 우수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보여줄 필요성이 있음.

추진방안:

- 경기도 31개 문화원 소속 대표동아리 각2팀 참가
- 문화원 주최/주관 축제 및 행사에 부대행사로 연계 참가
- 경기도민속예술제 행사와 연계하여 축제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
- 권역별 경연대회에 우승한 팀 페스티벌 31에 출연권 부여

4. 경기도문화원 페이스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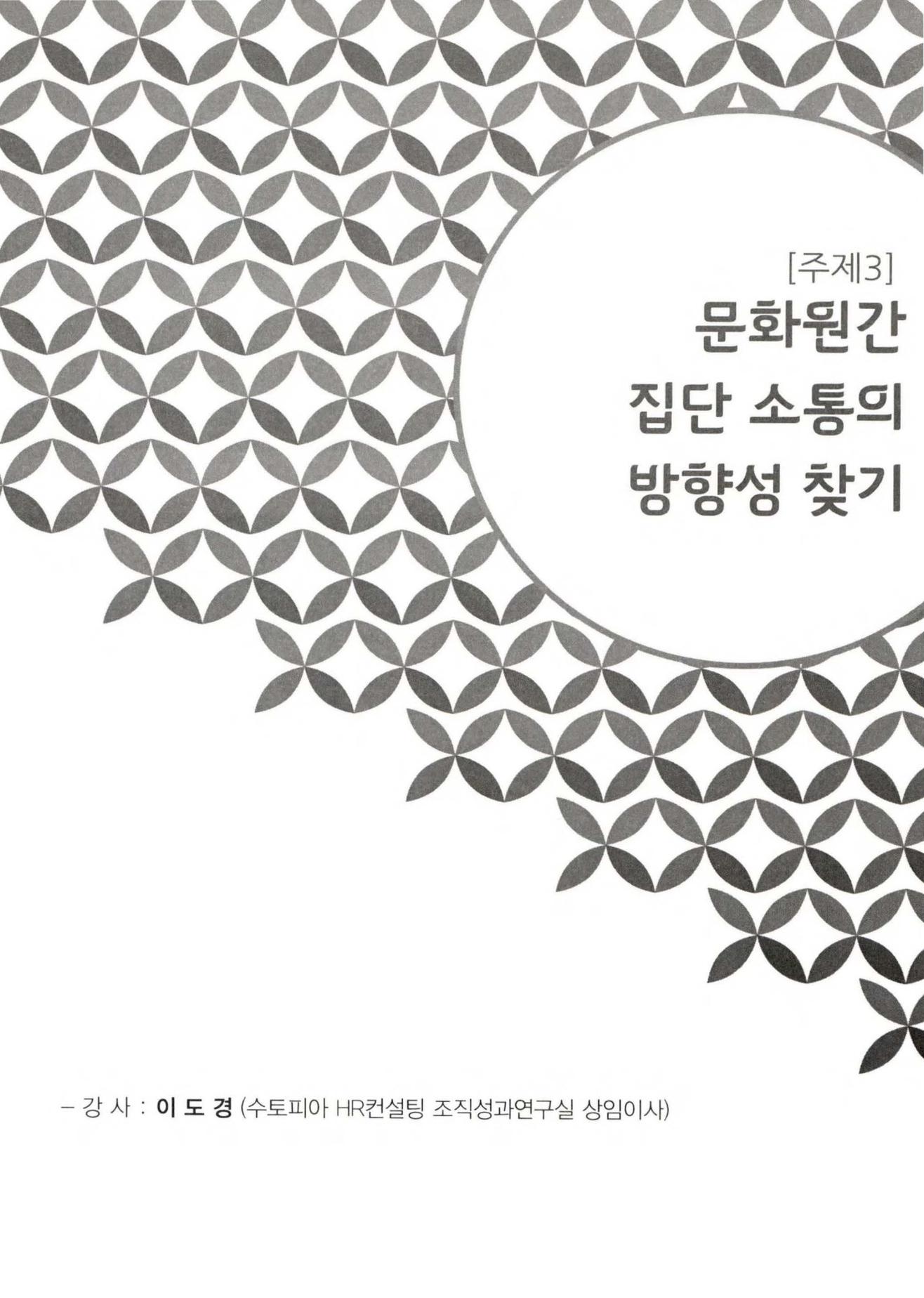
제안 배경:

☞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SNS가 적극활용 되고 있다. 이젠 번거롭게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일부로 문화원의 소식을 찾아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은 그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 파워블로거의 힘은 곧 회원의 수에서 나온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평균 회원 및 이용자수를 300명 이상으로 추정할 때 약 1만여명의 회원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활용한 문화원의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이다.

추진방안:

- 각 문화원 회원을 페이스북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 문화원당 최소 1명의 문화원 소식을 올리는 담당자 정하기
-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각 지역 시의원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주제3]
문화원간
집단 소통의
방향성 찾기

- 강 사 : 이 도 경 (수토피아 HR컨설팅 조직성과연구실 상임이사)

여 백



내가 탄 배를 확인하라



배 = 집단, 조직



목적지 = 목표, 비전



선장 = 리더십



승무원 = 팔로우십

사회생활의 성공요인

사회생활 성공요인 ?

85%

인간관계 성공요인 ?

85%

팀웍을 방해하는 요인들



사막에서의 조난

집단 소통
MISSION !!



15가지 물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MISSION !!

- 과제 지시문을 읽으시오
- 상황 지시문을 읽으시오
- 15가지 물품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 개인연구 : 5분 / 팀연구 30분
- 팀장 1명 선출
- 관찰자 1명 선추



팀 연구 행동 수칙

MISSION !!

- 가. 다수결로 하거나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말라
- 나. 관찰자는 팀연구 활동은 없다.
- 다. 시간이 경과되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토론을 끝내라!



MISSION 수행!!!





미션 수행결과 발표

1. 각 팀별 미션 수행 결과 논리적 발표(팀장)
2. 정답 제시 / 팀별 개인 점수와 팀 점수 집계
3. 팀별 상호 작용에 대한 FEED_BACK
4. 관찰자의 관찰 결과 FEED_BACK



긍정적인 조직원의 행동

가조화와 중재

- 긴장을 완화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점을 조정한다.

나참여의 유도

-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돕는다.

다지지와 장려

- 다정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라기준 정하기

- 회의 진행을 돕는 원칙을 정립하고 시행한다.

부정적인 조직원의 행동



가방해

- 의사결정의 합의나 진전을 막는다.

나지배

-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적개심을 보인다.

다농담

- 적절하지 않은 유머나 농담을 남발한다.

라독단

-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의 의견제시를 억압한다.

마방관

- 침묵하거나 공상하며 참여에 소극적이다.

소통의 시작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_____ 에 대하여 이야기 하라!

소통의 정의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등 제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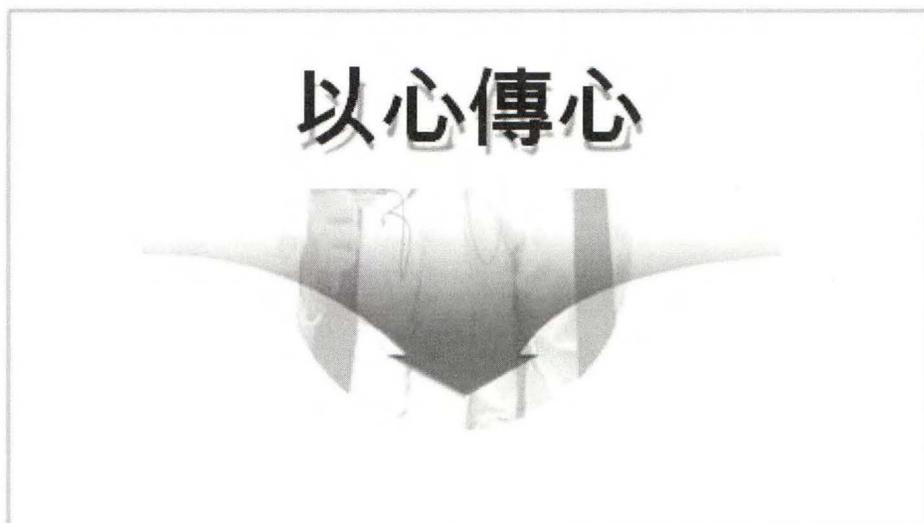
훌륭한 대화란 상대방 과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과 상대방의 모순점을 서로 보완 하는 과정

소통의 목표

상대방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복제시
켜
강한 _____ 나 _____ 를 형성시키는 것



소통의 방해요소



소통의 방해요소

방해요소	내용
왜곡 (distortion)	전달자나 수신자의 능력, 의도하는 바, 가치관, 생각 등의 차이로 원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생략 (omission)	수신자가 판단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자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과중 (overload)	전달해야 하는 정보나 지식이 너무 많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손상을 입든가 전달의 효과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타이밍 (timing)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때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
수용성 (acceptance)	수신자가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경청이 안되는 이유

01. 상대가 이야기 할 때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

02. 상대의 이야기를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

03.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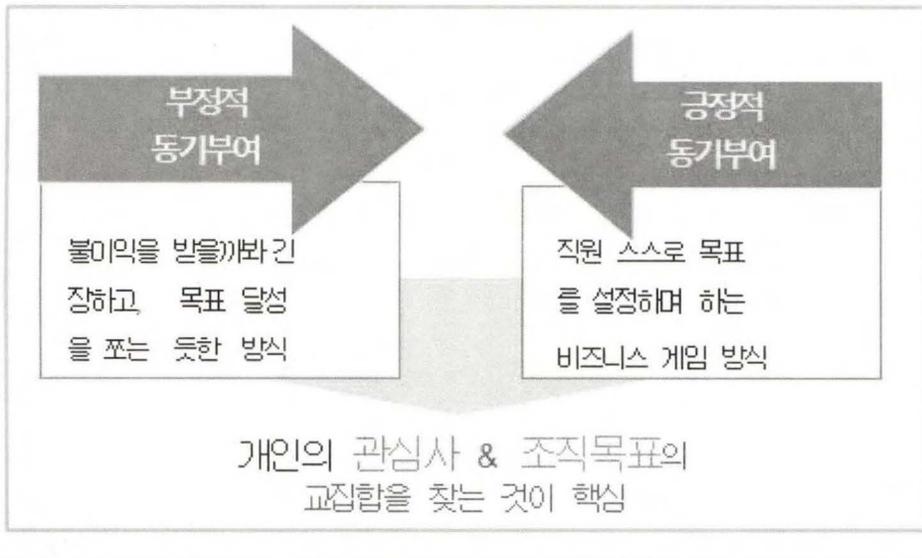
04.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05. 심신이 피로 하여 집중 하지 못하기 때문



소통의 방해요소



공감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온 존재로 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어떤 선입관이나 판단도 떨쳐버려야 공감은 가능해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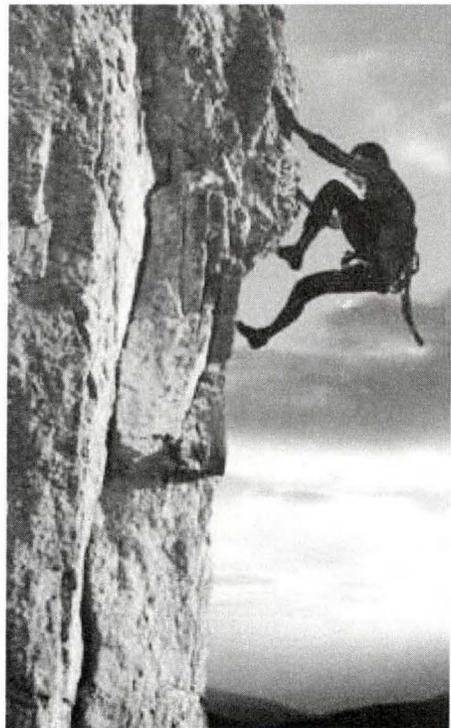
공감이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곳
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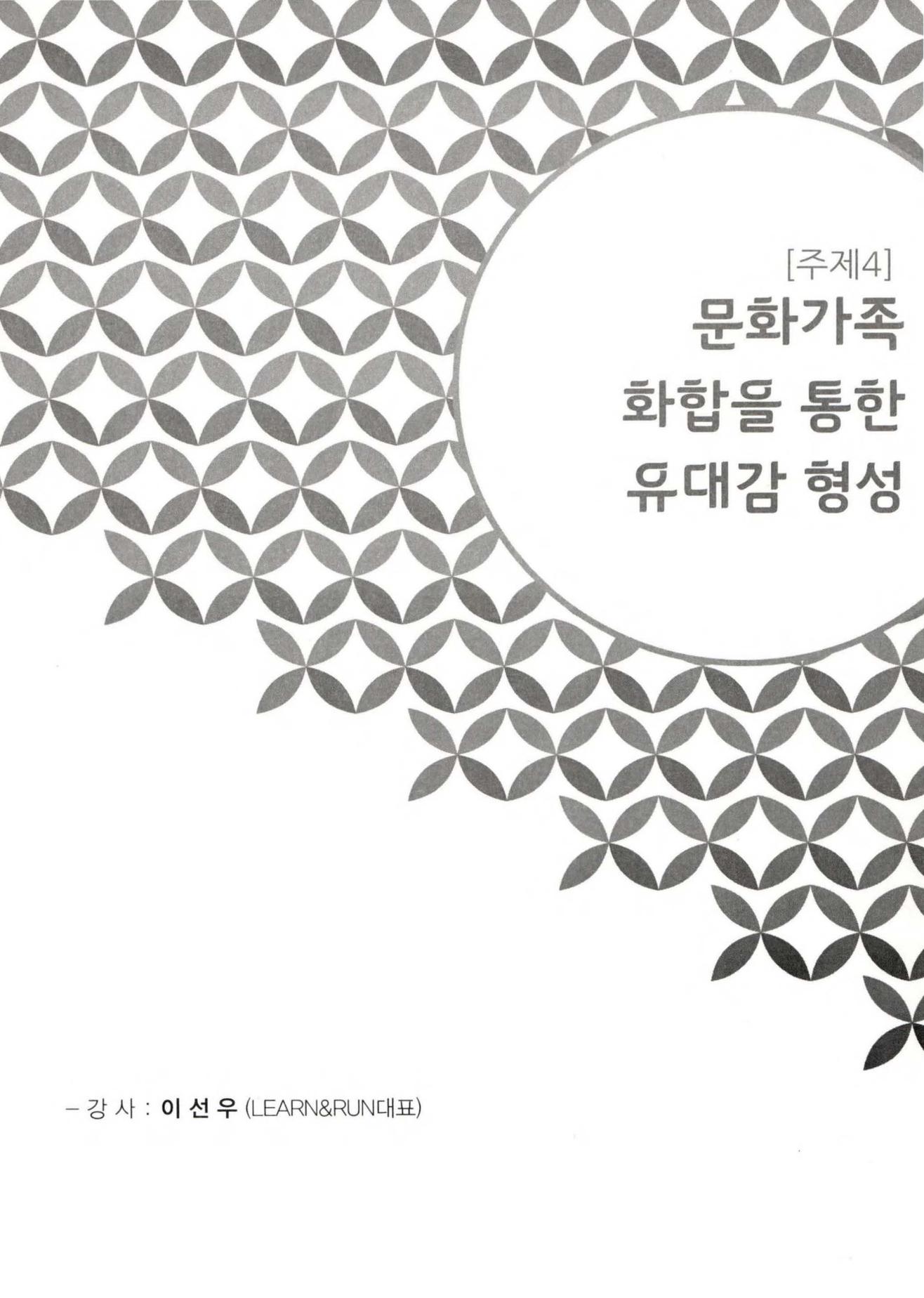


아이도 되어 보고 엄마도 되어 봅니다. 아이의 답답함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탐험은
미지의
땅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마르셀 프루스트-





[주제4]
문화가족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 강사 : 이 선 우 (LEARN&RUN대표)

여 백

문화가족 화합을 통한 유대감 형성



행복한 정원 김연련



행복한 정원사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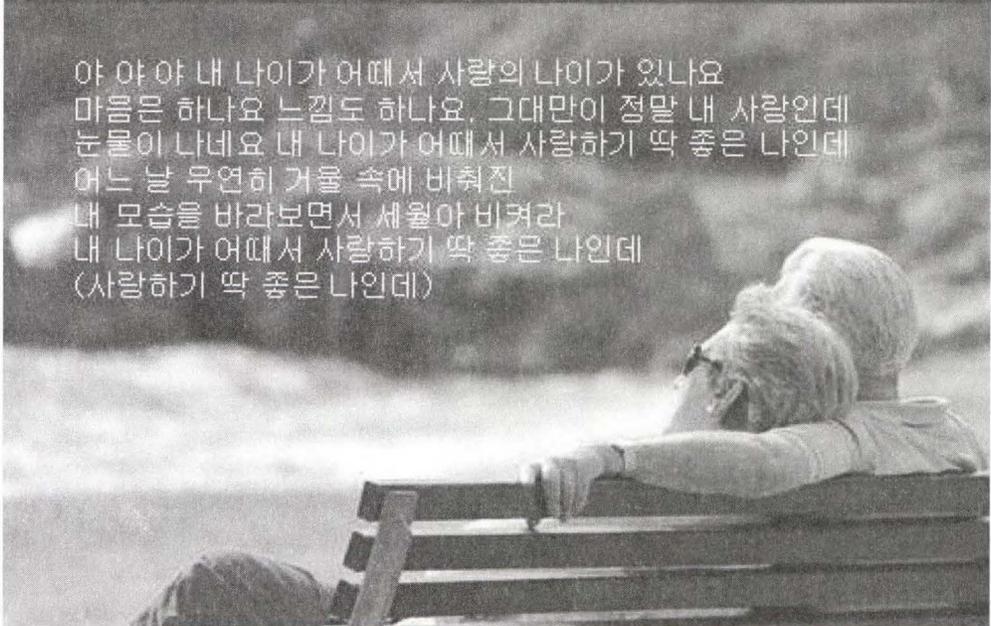
sunrec@naver.com

워밍업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Turn Taking

주고 받기, 리액션

유대감에서 웃음, 유머가 필요한 이유?

표현	표정	리액션
	발음	발성
무장해제(편안함)		재미
	공감형성(미소)	호흡
무대 공포증		긴장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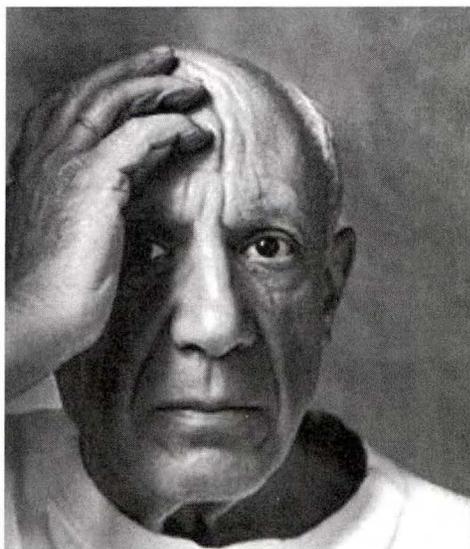
말...

이해 ➡ 감동 ➡ 설득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공감을 이끌어 손
과 발이 움직이는 실행력을
만드는 것이 소통이다.

말에는...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파블로 피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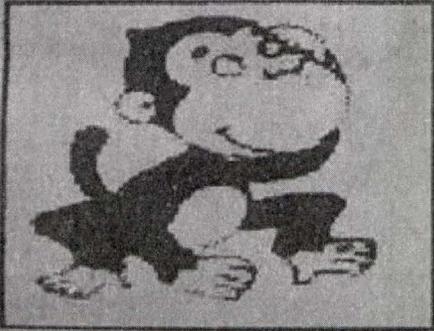
빈센트 반 고흐

**즐거움, 재미는
인생의 기초체력이다.**

웃음과 유머를 연습하라

초딩들의 답안지

8.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써 보세요.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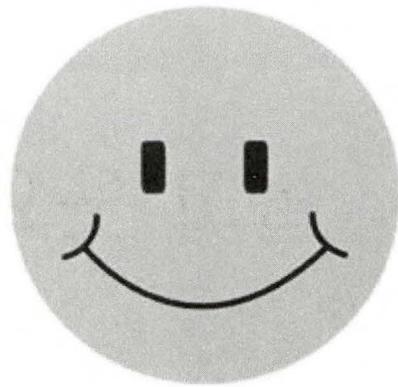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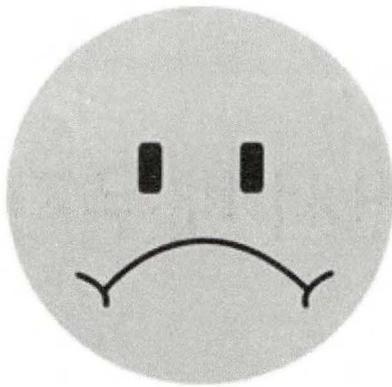


초딩들의 답안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수영 경기장**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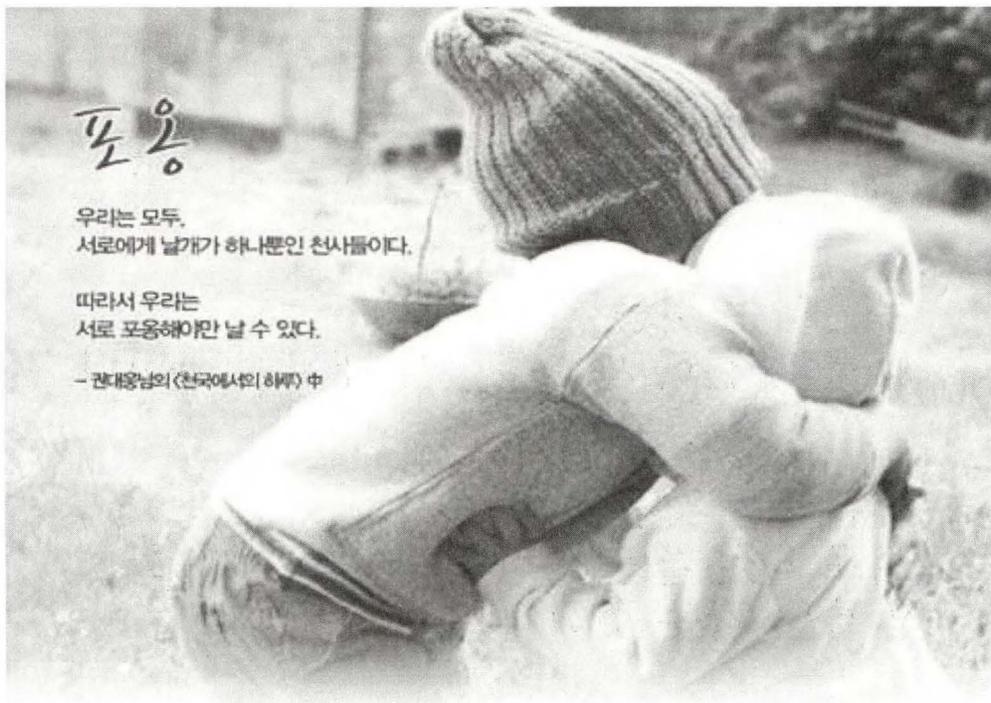


포옹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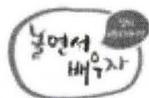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서로 포옹해야만 날 수 있다.

- 권대홍님의 <천국에서의 하루> 中





놀이면서 배우자



논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웃는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여 자신감을 채우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삶의 완충지대

친구를 만드는 법

우정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만들어 지는 것이다.

1. 시간을 투자하라.
2. 진솔한 소통을 하라.
3. 의지가 되어주고 충실해라.
4. 포용해줘라.

아듀 2015.

201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1.
- 2.
- 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תודה
Dankie Gracias
Спасибо شكراً
Köszönjük Merci Takk
Terima kasih
Grazie Dziękujemy Dékojame
Ďakujeme Vielen Dank Paldies
Kiitos Tänname teid 谢谢
Thank You Tak
感謝您 Obrigado Teşekkür Ederiz
Σας Ευχαριστούμ 감사합니다
Bedankt Дěkujeme vám ขอบคุ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ack

<메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Gyeonggi-do Cultural Center



경기도



경기도의회

본 책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허락없이 무단도용할 수 없습니다.

